

데이터 시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윤종인 이화여대 초빙교수, 전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지금은 데이터 시대다. 데이터가 산업과 경제 전반에 걸쳐 새로운 가치 창출의 촉매제가 되는 시대이다. 데이터 시대에 우리는 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생활의 편의를 경험하고 있다. 세계 경제 역시 크게 변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약 70년간 전쟁의 폐허로부터 세계 10위권의 경제선진국과 민주국가를 동시에 달성하는 기적을 이루었다. 데이터 시대에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대한민국이 선도자(first mover)로서 새로운 질적 도약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 데이터 시대가 만들어내는 사회와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긍정적 성과를 선도한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도약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크다. 대한민국의 높은 교육 수준과 강력한 IT 인프라, 기업의 역량과 정부 의지 등을 볼 때 가능성이 없지 않다.

데이터 시대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는 데이터와 데이터 시대, 그리고 디지털 전환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선례 없는 일에 대한 대응에 매우 취약하다. 선례 없는 일에 대하여 과거 경험에 의존하여 대응하려다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한다. 새로운 데이터 시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대를 하게 하고 사회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데이터를 둘러싼 다양한 갈등과 이해 상충, 그리고 이로 인한 복합적인 불안을 낳고 있다. 데이터 시대의 가속적 변화로 인하여 개인, 공동체, 국가 전체가 다양한 부적응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대중영합주의 정치가나 국수주의자가 주장하는 분과주의적 분열이 늘어나고 있다. 데이터 경제로 인한 불평등의 문제도 있다. 네트워크 효과는 경제적 독점으로 이어지기 쉽고, 자본과 노동 사이의 소득 배분의 편향성이 더욱 커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데이터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무엇보다 데이터를 전기처럼 안전하게 쓰는 것이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데이터 시대의 최종적인 사회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으로 첫째, 데이터 시대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해 상충을 속도감 있게 해

결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데이터관리 제도의 설계가 필요하다. 둘째, 데이터 시대가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비한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 동종 선호와 필터버블 같은 현상이 사회와 민주주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정부와 기업에 의한 감시와 추적의 투명성과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기술 창조기업은 그 기술이 가져오는 긍정적 과실만을 취해서는 안 되며,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도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 셋째, 데이터 시대에도 인간적인 삶을 가능케 하는 다양한 대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일의 성격 변화와 잠식에 따른 노동 소득 감소, 그리고 이로 인한 장기적인 부의 불균등 배분에 대비하여 교육제도의 재설계, 소득의 균형 배분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넷째, 데이터 기술의 인간화를 도모해야 한다. 인간의 약점을 악용하지 않고 이를 보완하며, 인간의 강점을 지지하는 데이터 기술이 우대를 받아야 한다. 데이터 시대에도 당연히 인간은 존중의 대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술의 은밀함과 복잡함이 인간 존중을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초강력 개인과 기업이 활동하는 데이터 시대에 강력한 사회안전망이자 자제력의 원천으로서 공동체(community)의 긍정적 역할이 다시 한번 고려되어야 한다. 공동체는 그 유장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개인(시장)과 국가(정부)보다 상대적으로 그 역할이 제한적으로 인식되어 왔다. 가속의 시대를 견디는 중요한 수단으로 공화주의적 전통에 입각한 조화로운 공동체 마인드의 회복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사회경제적 난제(wicked problems)를 해결하는 정책조합에 정부와 시장과 함께 공동체를 포함하는 다양한 공동생산(co-production) 방식이 널리 확산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금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살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사회구성원이 만족하는 좋은 사회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데이터 시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이다. 미래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달렸다. 역사는 필연적이지 않으며 인간의 노력에 관대하다. 따라서 데이터 시대를 제대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혁신과 변화만이 유일한 답이다. 데이터가 만드는 가속의 시대에 혁신도 가속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